

잡음없는 환경친화적 개념의 미래형 잔디깎는 기계

(스톡홀름 6월9일 AsiaNet=연합뉴스)옥외 동력제품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허스크바나(Husqvarna)는 소리 안나고 강력하며 환경친화적인 미래형 잔디깎는 제초기를 개발했다. 허스크바나의 설계사와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신개념 제초기는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져 잔디 가꾸기의 미래상을 제시한다.

멀티미디어 보도자료를 보려면  
<http://www.prnewswire.com/mnr/husqvarna/38733/>

허스크바나의 마그너스 욱겐(Magnus Yngen) 사장은 "허스크바나 판세라 리오(Husqvarns Panthera Leo)는 우리의 혁신 역량과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는 고성능 제품 개발에 대한 포부를 그대로 보여준다"고 말했다.

허스크바나 판세라 리오는 라이더(Rider)와 제로턴(Zero-Turn)등 두 개의 운전식 잔디깎는 기계의 하이브리드 제품이다. 어떤 전기 콘센트에서든지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가 기존의 가스 엔진을 대체했다. 5대의 힘줄은 전기모터가 흡수 커팅 데크(cutting deck)와 함께 허스크바나 판세라 리오가 잔디밭을 힘들이지 않고 잡음없이 조용히 굴러갈 수 있게 해준다. 개별적으로 걸려있는 3개의 커팅 데크는 이 제초기가 정원의 울퉁불퉁한 곳에서도 문제없이 잔디를 깎을 수 있게 해주어 잔디가 고르지 않게 깎이는 것을 막는다. 커팅 데크들은 각각 잔디를 밀착해서 자르는 날카로운 레이저 날을 가지고 있으며 잔디가 넓거나 좁거나(85센티에서 120 센티까지) 맞춰서 조절할 수 있다.

모든 기능은 핸들에 있는 패들을 통해 관리한다. 정원사들은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운전 속도, 잔디깎이 높이와 폭, 잔여 배터리 시간, 서비스 요구사항과 너무 가까이 접근한 물체에 대한 경고 등 완전한 잔디깎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. 허스크바나 판세라 리오는 완벽한 잔디깎이를 위해 적절한 스피드와 잔디깎이 높이를 추천해 줄 수도 있다.

허스크바나는 환경영향 감소 제품과 관련한 많은 영역의 선도기업이다. 이 그룹의 신형 엔진은 미국과 유럽의 엄격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준수한다.

#### 기능

- 무공해(zero-emission)기술 장착
- 재활용 소재로 생산
- 리튬 인산 충전 배터리
- 유지하기 쉽고 깨끗한 5대의 브러시없는 전기 엔진
- 예리한 레이저 날을 가진 3개의 별도 커터
-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순탄하게 굴러가고 잔디가 고르지 않게 깎이는 것을 막도록 개별적으로 걸려있는 3개의 커터들
- 다양한 잔디깎이 폭(85-120 센티)
- 제로 턴(zero-turn) 기능
- 90도 리프팅 커팅 데크(lifting cutting deck)
- 인강공학적 조향 핸들

- 제어하기 쉬운 대시보드
- 절단작업 시간 2시간, 철야충전
- 상세한 LCD 디스플레이 모니터(절단 높이, 커팅 데크의 높이, 스피드, 서비스 정보, 너무 가까운 물체와 급경사지 경보,

고해상도 영상은 다음 사이트를 통해 구할 수 있다.

<http://www.husqvarna.com/press> , "image bank", "products", "lawn and garden"

허스크바나는 잔디 깎는 기계, 전기 톱, 트리머(trimmer)와 블로워어(blower) 등 휴대형 석유 구동식 정원장비의 세계 최대 생산업체다. 2008년 순매출은 323억 SEK이며 평균 직원 수는 15,700명이다. 본 그룹은 또한 다이아몬드 공구와 건설 및 석재 산업용 절삭 장비의 세계 선도 기업이다.

자세한 정보 연락처:

- Husqvarna Press Hotline, at +46-8-738-70-80 or [press@husqvarna.se](mailto:press@husqvarna.se)

자료제공: Husqvarna AB  
(끝)